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국내 단기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국공채, 통안채, 특수채 등의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며, 나머지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으로 다양한 자산에도 투자합니다.
- 채권투자전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80%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국내 채권 전략과 별도로 운용되는 전략이며 금리 움직임에 따라 장기국채 및 장기국채선물(10년)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 펀드의 채권 평균 듀레이션은 1년 ± 1년 수준에서 운용될 예정
- 주식투자전략: 주가지수(KOSPI200) 움직임에 따라 주식관련 상품(집합투자증권 또는 선물)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
- 외환투자전략: 환율 움직임에 따라 달러 및 외화표시채권 등 매매를 통해 수익을 추구

투자전략 및 운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파생상품 등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48억 원

펀드유형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20년 01월 28일)

- 클래스 A : 2020년 01월 30일
- 클래스 A-E : 2020년 02월 11일
- 클래스 C : 2020년 01월 30일
- 클래스 C-E : 2020년 03월 18일
- 클래스 C-F : 2020년 01월 28일

벤치마크 CD금리(3개월물)+0.4%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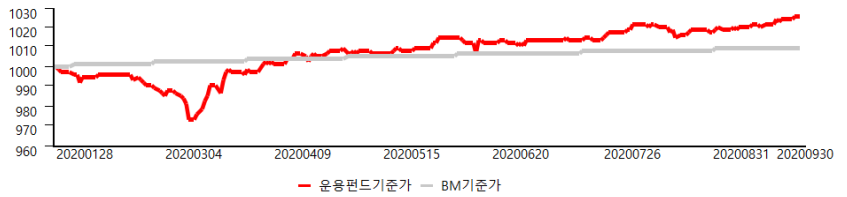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77%	1.33%	2.93%	-	-	-	-	2.48%
클래스 A	0.72%	1.18%	2.63%	-	-	-	-	2.08%
클래스 A-E	0.73%	1.22%	2.73%	-	-	-	-	2.83%
클래스 C	0.69%	1.10%	2.47%	-	-	-	-	1.87%
클래스 C-E	0.72%	1.18%	2.65%	-	-	-	-	4.45%
클래스 C-F	0.74%	1.24%	2.74%	-	-	-	-	2.22%
클래스 C-P(퇴직연금)	-	-	-	-	-	-	-	0.70%
벤치마크	0.08%	0.28%	0.62%	-	-	-	-	0.93%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자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 상기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언급된 수익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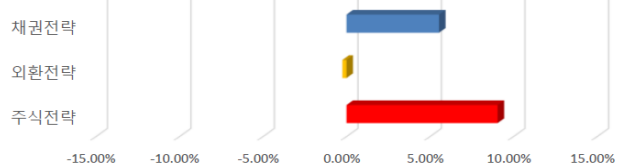


자산 구성 현황 (2020년 09월말 기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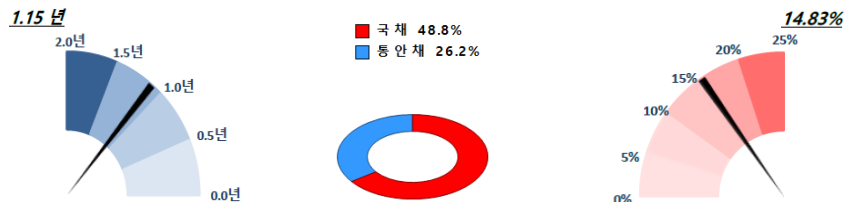


<알파전략 내 각 투자자산 비중> (2020년 09월말 기준)



(2020년 09월말 기준)

<펀드 듀레이션>(단기채권 전략 포함) 단기 채권전략-종류별 비중 알파 투자전략 비중합계(절대값 환산)



상위 5개 보유 종목 (2020년 09월말 기준)

채권전략	비중 (%)	알파전략 (주식/금리/외환)	포지션	비중 (%)
국고02000-2112(18-9)	31.9	10년국채 F 202012	매수	5.5
통안01315-2110-02	16.8	KODEX 200	매수	4.5
국고02250-2106(18-3)	8.5	TIGER 200	매수	4.5
국고01750-2012(17-6)	6.3	미국달러 F 202010	매도	-0.2
통화안정증권00590-2107-01	6.2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58% (판매 0.24%)
- 클래스 A-E : 총 연 0.46% (판매 0.12%)
- 클래스 C : 총 연 0.9% (판매 0.56%)
- 클래스 C-E : 총 연 0.62% (판매 0.28%)
- 클래스 C-F : 총 연 0.37% (판매 0.03%)

(공통사항)

운용 0.3%, 신탁 0.027%, 사무관리0.013%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25% 이내
- 클래스 A-G 납입금액의 0.35% 이내
- 클래스 C, C-E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지난 한달간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충격이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개인 투자자들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미국의 테크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월 중반 국내 증시도 크게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IT 섹터의 강세로 회복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월초 채권시장은 미국 실업률 개선 및 국내 4차 추경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세 출발하였으나 한은의 5조원 규모 단순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강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가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고 연말까지 기준금리 25bp 인하를 전망하면서 강세장이 이어졌으나,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현재 기준금리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이라고 언급되면서 추가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었습니다. ECB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였고 성장을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정책 대응이 시장에 매파적으로 인식되면서 유로존 금리는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BOE가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보이면서 유로존 금리는 상승세를 되돌리며 포함하였고, 9월 FOMC 의사록에서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에 따른 장기간 저금리 기조 유지 의사를 보였으나 방법론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9월 말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확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국채의 WGBI 편입으로 위안화는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저점 경신하였습니다. 이는 외인의 선물 순매수로 이어졌고, 한은의 2조원 단순매입까지 단행되면서 금리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코스피200 지수는 0.75% 상승한 309.44로 마감하였으며, 국고3년 금리는 전월대비 10.5bp 하락한 0.842%, 10년 금리는 10.0bp 하락한 1.427%로, 원-달러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하여 1,169.60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펀드에서는 절대수익 전략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글로벌 증시에서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앞서 이미 조정국면을 지났고,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모멘텀의 강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지원 정책이 증시의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IT, 반도체 등으로 기대가 쏠려 있고, 미 대선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